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주금공 홈페이지 '마비' 은행 창구는 '한산'

年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2주간 접수 예정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혼란이 우려됐던 영업점 창구는 한산한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주금공 홈페이지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주금공 홈페이지는 동시 접속자가 약 1만명 몰리면서 마비 상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돼 기존 대출 상품보다 차주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혜택에 고객 관심이 몰리면서 주금공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주금공은 주요 포털사이트 네

이버, 다음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올라왔다.

반면 시중은행 영업점들은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 2015년 1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날 오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본점 영업점은 혹시 모를 고객 대란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순탄하게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1차 때와 달리 선착순이 아니고 주금공을 통해서 접수하면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 고객이 붐비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서울 365 9월 스트리트 패션쇼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365 9월 스트리트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참스(CHARM'S)의 강요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침으로 5초만에 '치매' 판단한다

경상대 연구팀, 내년 '치매 진단키트' 상용화 기대

국내 연구진이 혈액이나 땀, 침과 같은 분비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치매 진단키트'는 이른바 내년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명옥 경상대 교수 연구팀이 혈액, 땀, 침 등의 체액 분비물의 바이오마커 21종을 활용해 초기 잠복상태 치매를 판별할 수 있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지금까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나 인지능력검사를 통해 진단했다. 이 방법은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 식별이 가능하고, 검사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유도 쥐에서 '마이크로어레이 스크리닝'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21종을 선정했다.

형광 나노입자 복합체는 상보적인 서열로 스템루프 구조를 이루고 루프구조에는 타겟이 되는 '마이크로RNA(miRNA)'의 서열이 나 항체를 결합한다.

스템루프 양 말단에 형광을 띠는 형광체와 형광을 소광시키는

소광체가 있는데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했다.

타겟 항원이나 miRNA가 항체 또는 miRNA 상보적인 서열에 결합하면 스템루프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소광체와 형광체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형광체가 형광을 발색한다.

발색 정도에 따라 치매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

연구팀은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혈액 시험에서 약 5초 이내로 정상적으로 진단이 이뤄지는 것을 증명했다.

이 기술은 민간 기업에 이전돼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김명옥 교수는 "치매는 사후 치료성격의 정밀의료와 병행해 조기진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예방이 강조되는 정밀건강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면서 "앞으로 다중오믹스를 활용한 치매극복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2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으며, 과기정통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뉴스1

택시비 카드로 결제하면 '車번호' 남아
금감원 '금융꿀팁'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을 보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터미널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택시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택시에서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줘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과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스1

'백년가게' 시행 첫돌만에 210호점

업주 42.5% "매출·고객 늘었다"…보증·자금 우대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가 210개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에 전문가 컨설팅, 보증·자금 우대혜택과 함께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3차로 백년가게 54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81개가 지정된 백년가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75곳을 선정하는데 이어 이날 3차 선정으로 총 210개로 확대됐다.

백년가게는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기부가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지난해 8월 제1호점 '만지막순 대국집'을 시작으로 210개가 지정된 백년가게 중 71.4%는 음식점업이, 28.6%는 도소매업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 11.0% △서울 10.5% △전북 9.0% 등 순이며, 규모로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88.6%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 5월 '2018년 선정 전체 백년가게 대상 매출·고객 증가 조사'에 따르면 선정된 가게의 42.5%가 매출·고객이 증가했고 대표자 37.8%가 자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주년을 맞은 백년가게 지정사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직접 지역 내 숨은 업체를 발굴하면서 지정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생존·성장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혁신역량강화 교육 기회 △지역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0.4%포인트(p) 인하 우대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기부 지방중기청장 등이 참여하는 현판식 개최를 통해 백년가게 선정 대표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 유명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식신) 및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한 전국적 홍보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29일까지 가을 여행주간 중 백년가게 방문 후 인증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즉석 필름카메라, 여행가방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